

Energy Bites

OPEC+, 실제 생산량이 증산 목표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

OPEC+, 10 월에도 증산 지속 10월 13.7만 b/d 증산 결정

새롭게 시작된 2차 증산: 9월 7일, OPEC+는 10월에도 13.7만 b/d 증산(=감산의 되돌림)을 결정했다. 3차 감산(220만 b/d)이 9월 내로 모두 되돌려질 예정이므로, 10월부터는 2차 감산(165만 b/d)분이 시장에 재공급될 계획이다.

증산 지속, 속도 완화: 10월 증산 규모는 13.7만 b/d로 9월 55.5만 b/d 증산 규모 대비해서는 약 1/4 수준이다. 향후 증산 속도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빠르게 달려왔던 증산 속도는 완화되었으나, 시장점유율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증산 여력 판별 구간 진입 누가 지속적인 증산이 가능할까

4월 대비 생산량 감소 국가도 존재: 연말까지 OPEC+가 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4월부터 5개월간 사우디(+49만 b/d), UAE(+18만 b/d), 러시아/이라크(+15만 b/d)가 증산했으며, 카자흐스탄(-1만 b/d), 알제리(-2천 b/d)는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했다.

가용생산여력 증명 구간: 이론적인 증산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추가 공급량은 사우디, UAE의 생산여력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감산이 약 2년 5개월이었기에 다시 생산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카자흐스탄/알제리 등은 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에, 향후에도 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가용생산여력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실생산량이 결정될 것이고, 유가의 바닥도 잡혀갈 것으로 전망한다.

애널리스트 코멘트 실 증산량은 예상에 못 미칠 것

국제유가, 단기 약세 및 연말 반등 의견 유지: 9월까지 OPEC+의 증산 물량으로 인해 유가 약세를 예상하나, 4분기부터는 점차 반등할 전망이다. 1~2개월 내 반등 전망의 근거는 ① 실제 OPEC+의 생산량 목표 하회 전망, ② 미국 셰일 생산량 피크 아웃(10월~), ③ 투기 포지션의 과매도 구간 진입(롱/숏 비율 1.2배 vs. 과거 10년 평균 5배)이다. OPEC+의 증산량이 확대될수록 미국 셰일 생산량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수급 전망에 큰 변화는 없다.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그림 1. OPEC+ 감산 일정(2차 감산 되돌림 가정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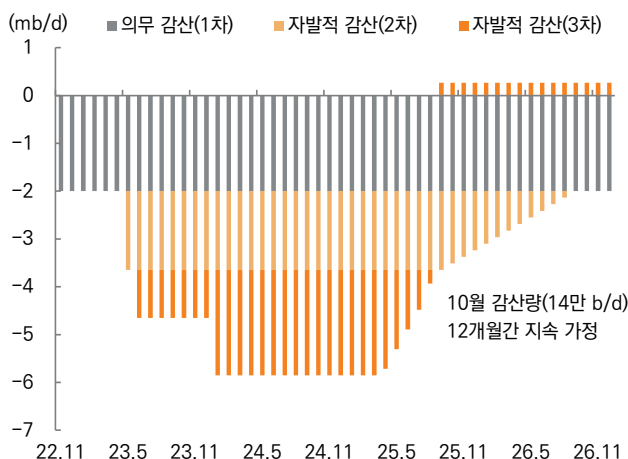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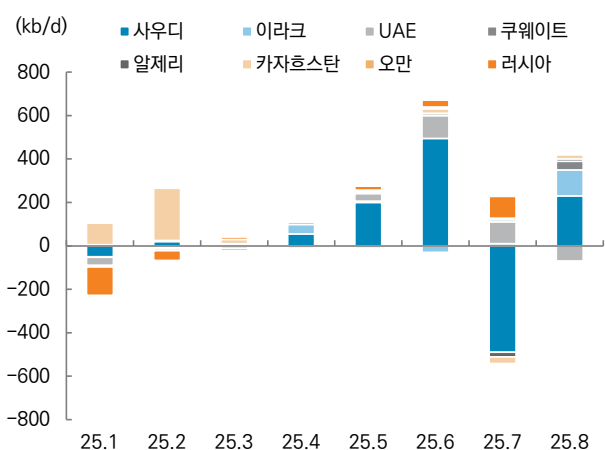


그림 2. OPEC+ 자발적 감산 참여 8개국의 월별 생산량 변화



자료: OPE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